

〈창립 4주년 기념사〉

우리 회사 창립 4주년을 기념하여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주신 김종익 이사님과 김한철 이사님 그리고 전국공항노동조합 엄홍택 위원장님, 이인행 중부본부장님 외 노동조합 집행부에게, 가장 먼저 축하와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아울러 사업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해오신 지점장 소장님들 그리고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KAC공항서비스가 벌써 창립 4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오늘의 KAC공항서비스는 회사를 위한 여러분의 끊임없는 헌신과 노력이 이루어낸 성과이기에, 회사를 대표하여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지난 4년은 위기와 극복, 변화와 적응으로 점철된 기간이었습니다. 오늘은 창립 4주년을 기념하는 자리이자, 또 다른 미래로 도약하기 위해 우리의 모습을 냉정하게 보고 새로운 각오를 다지는 자리입니다.

우리는 노사가 공동으로 구성한 직제개편위원회에서 오랜 직원들의 염원이었던 직제 및 임금체계 개편에 합의하였습니다. 또한, 불필요한 예산을 절감하여, 코로나19 시국에 힘든 이웃을 돕는 사회 공헌활동과 직원들의 복지 향상을 이룬 바 있습니다. 이는 올해 매우 큰 성과입니다.

다만, 회사 임직원 모두 지난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의 더 큰 목표를 위해 다시 시작하는 한 해가 되도록 노력하고자 합니다.

내년에는 성과에 따른 평가 및 보상을 강화하고 상향식 평가를 강화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제도 운영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입니다.

또한, 회사가 한층 더 발전하기 위해 직원들의 교육훈련에도 힘을 예정입니다. 법정 의무교육만이 아니라 직무교육, 리더십 교육, 소통 교육 등 다양한 교육훈련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직원들의 동기부여와 자기 계발, 직무능력 향상을 도모하겠습니다.

새로운 목표는 회사의 발전에 있어 든든한 디딤돌이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물론 그 길이 결코 쉽지만은 않겠지만 저부터 깊이 고민하고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겠습니다. 내년에는 모회사인 한국공항공사를 설득하고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우리 회사가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회사 임직원들은 내년에도 최선을 다하여 안전한 공항운영과 최대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국민 생활 및 편익 증진을 도모하며 국가 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더욱 힘써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예기치 않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더 많은 직원과 이 자리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이 너무나 아쉽습니다. 머지않아 코로나19 상황이 정리되고 여러분들과 함께 직접 만나서 이 기쁨을 함께 나누게 될 날을 손꼽아 기다리겠습니다. 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이 맞이할 앞으로의 하루하루가 한층 값지고 행복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12. 20.

